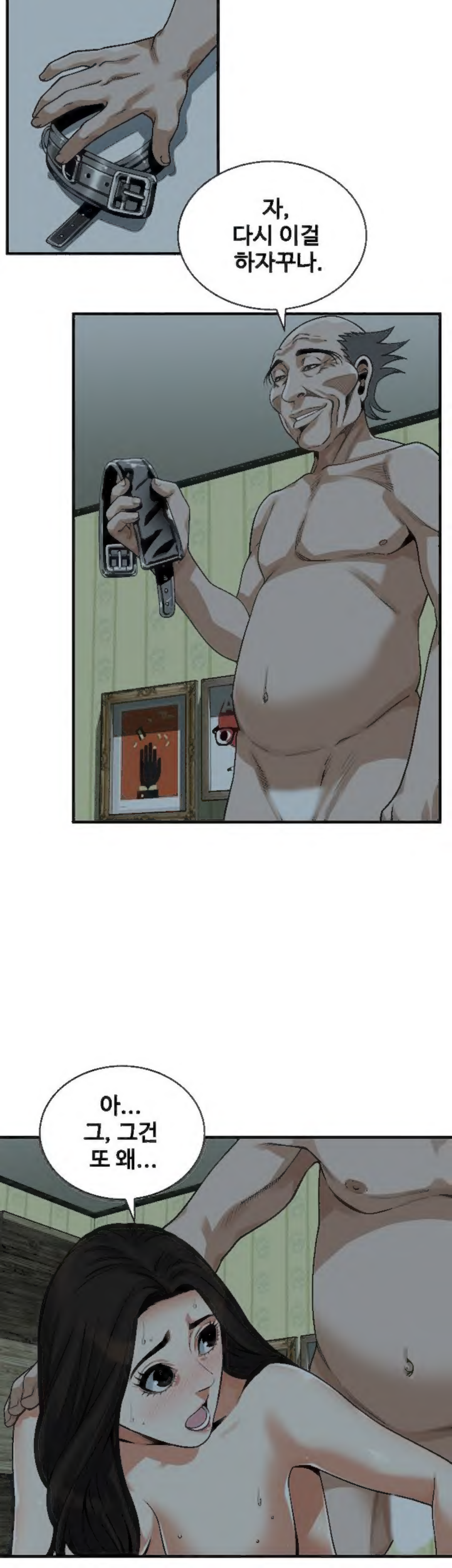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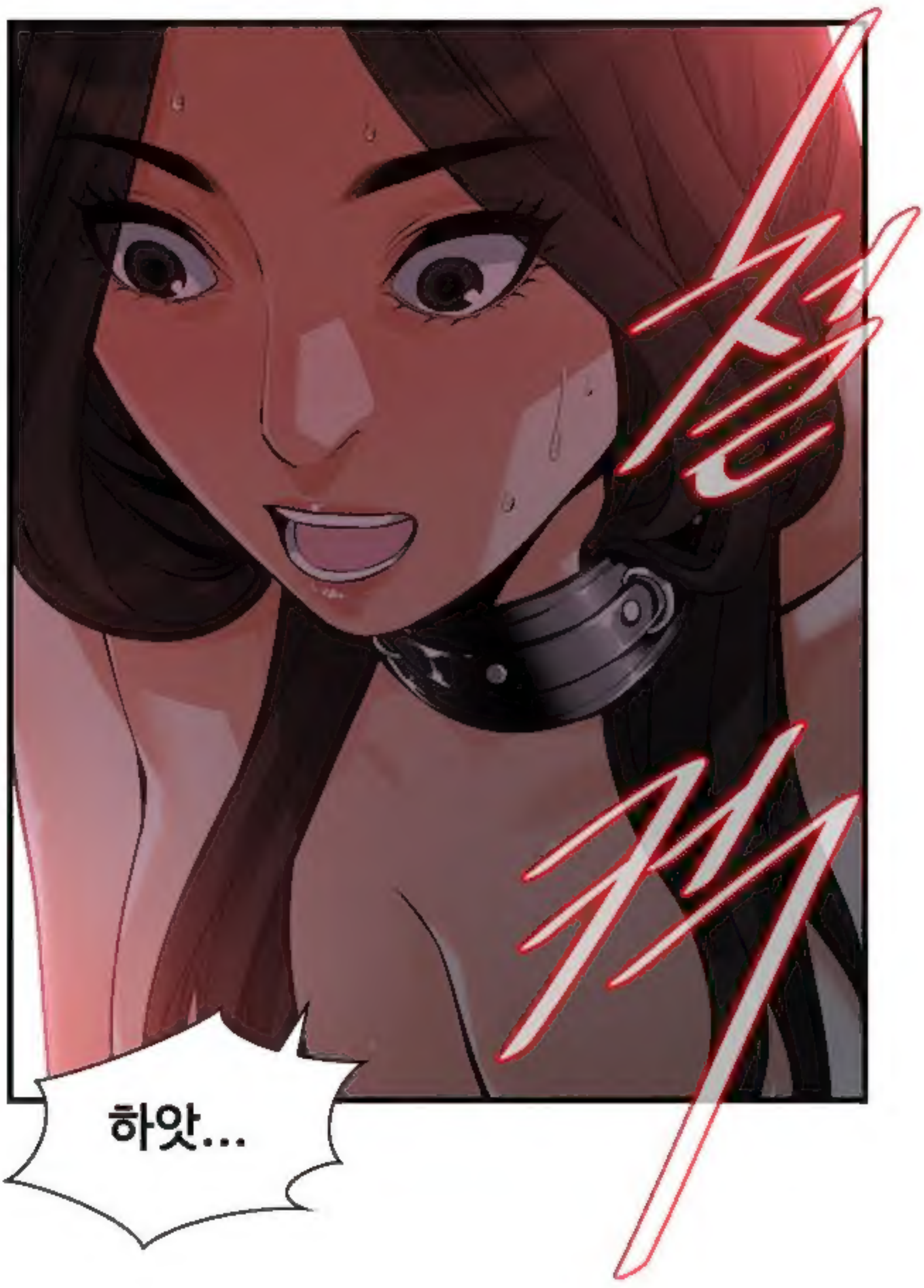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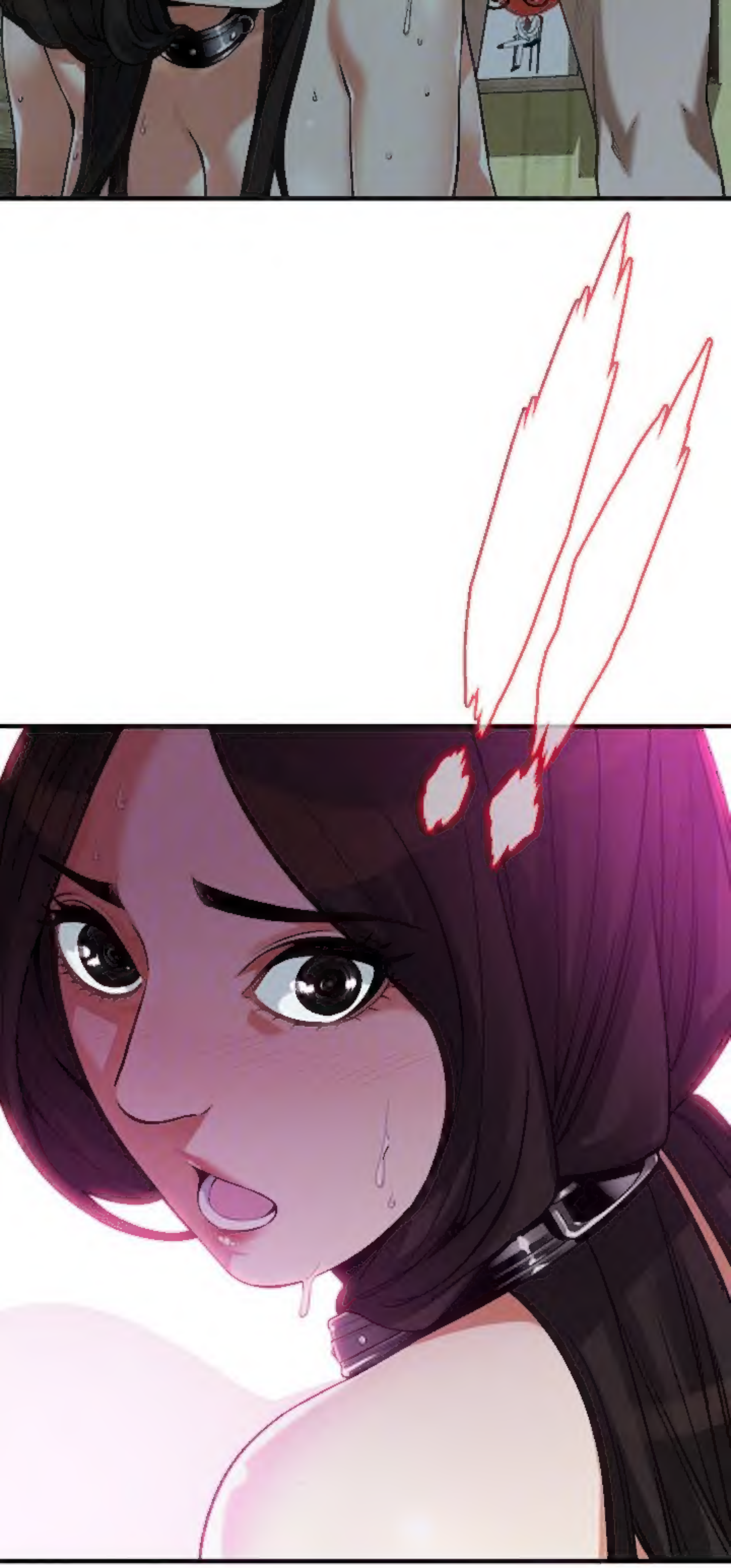
안 되겠다,
오늘은 네년을
좀 더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자,
다시 이걸
하자꾸나.
아...
그, 그건
또 왜...


하앗...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공원으로 나가는
거다.



흡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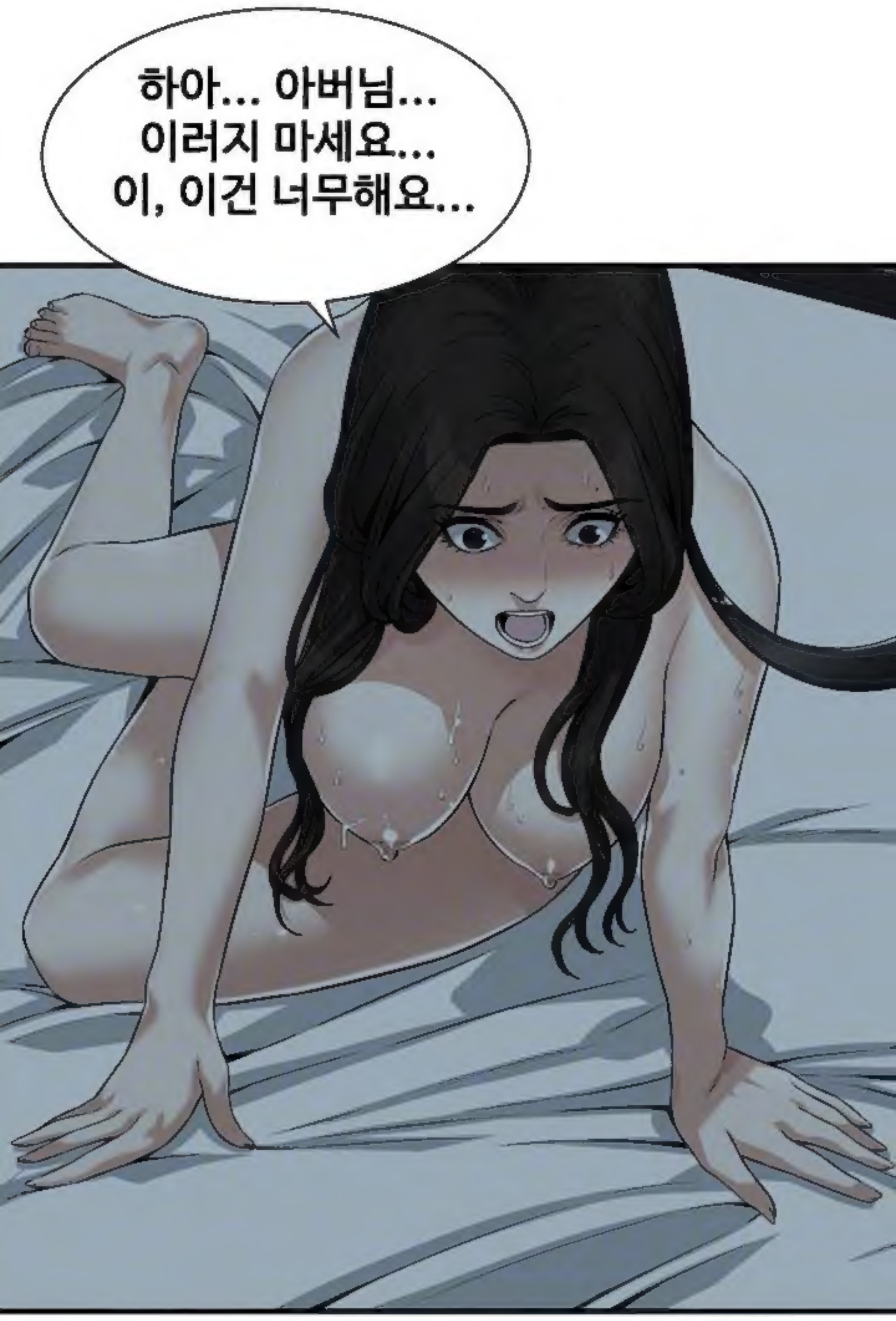
art by . 이을
story by . 타르초

아, 아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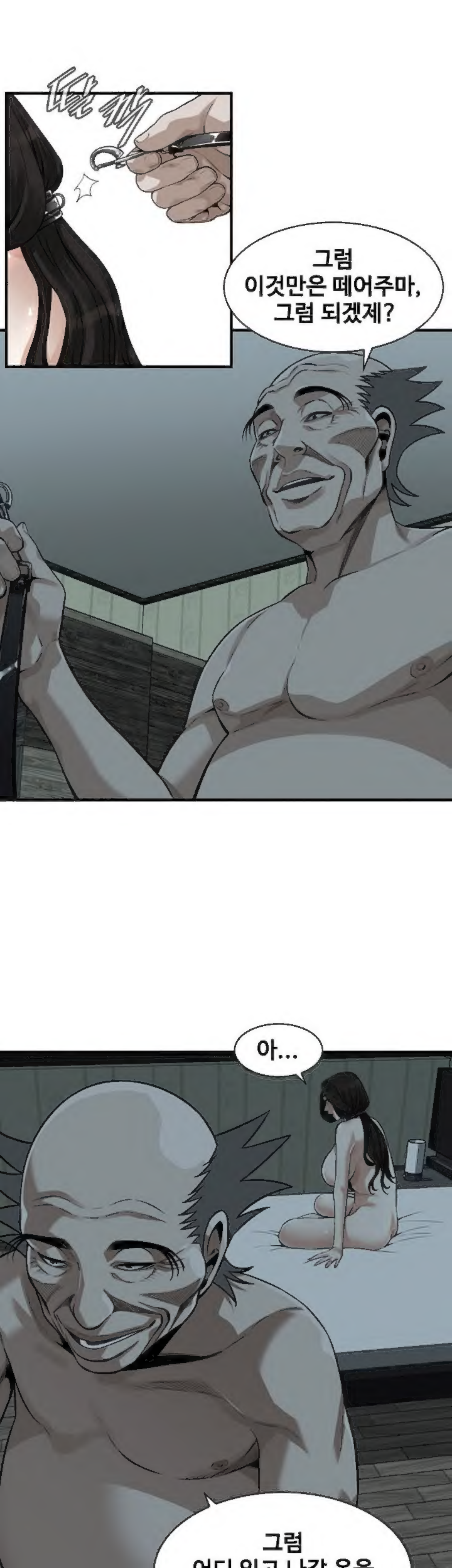
그동안
발정 난 암캐 같이
굴었으니 이런 대접을
해줘야겠제?

뚜근

두근
두근
아... 아버님...
제가 왜...
큭
큭
큭
닥치거라!
패
애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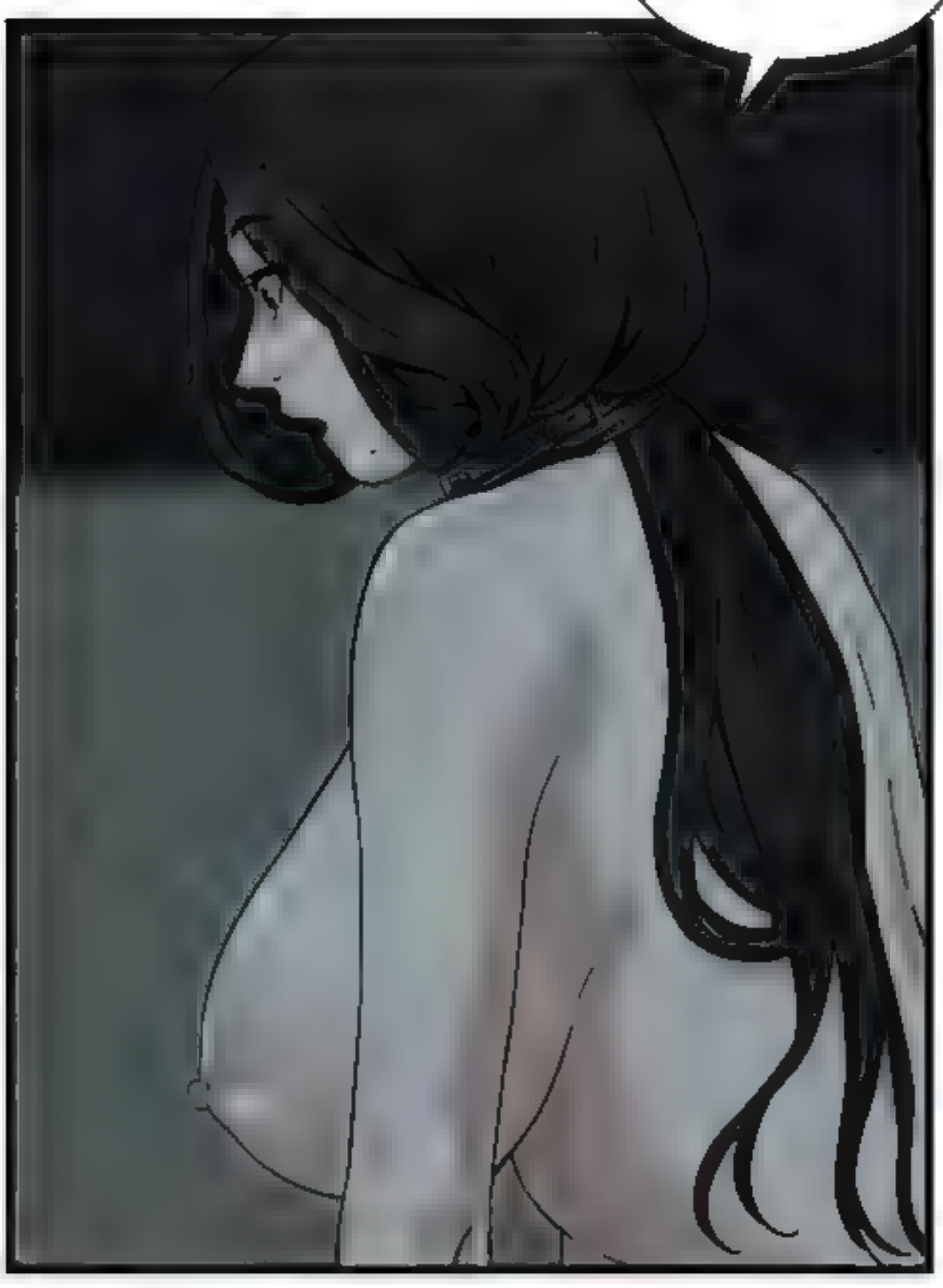

하아...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이, 이건 너무해요...

흐흐...
부정한 짓을
한 년 주제에
그래도 이건
너무 부끄럽다
이 말이냐?


그럼
이것만은 떼어주마,
그럼 되겠제?
아...
그럼

어디 입고 다닐 옷을
찾아보자꾸나.

흐음...
쓸 만한 게
없을꼬...



오홋,
이 정도면
되겠구나.

아가,
어서 입어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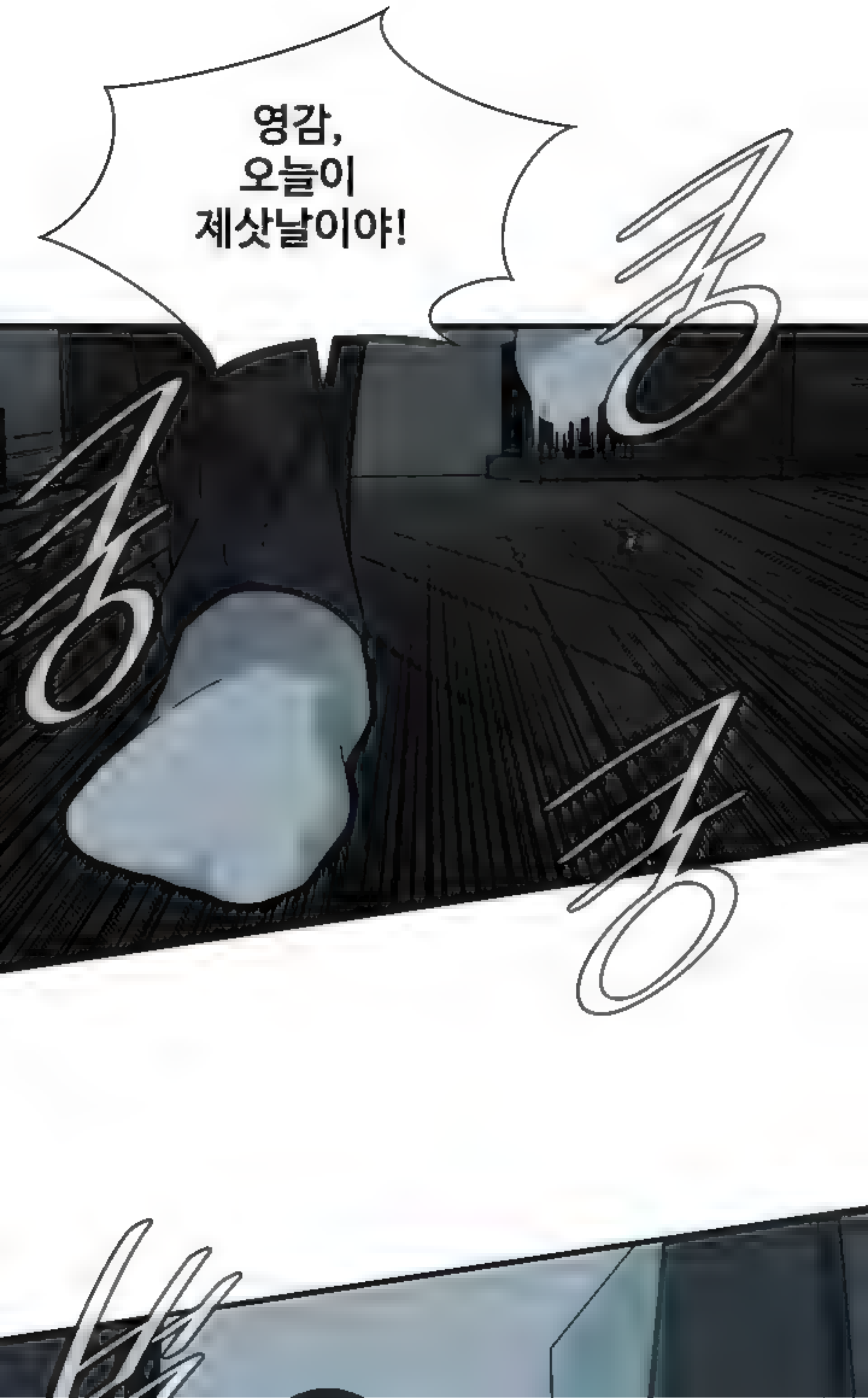
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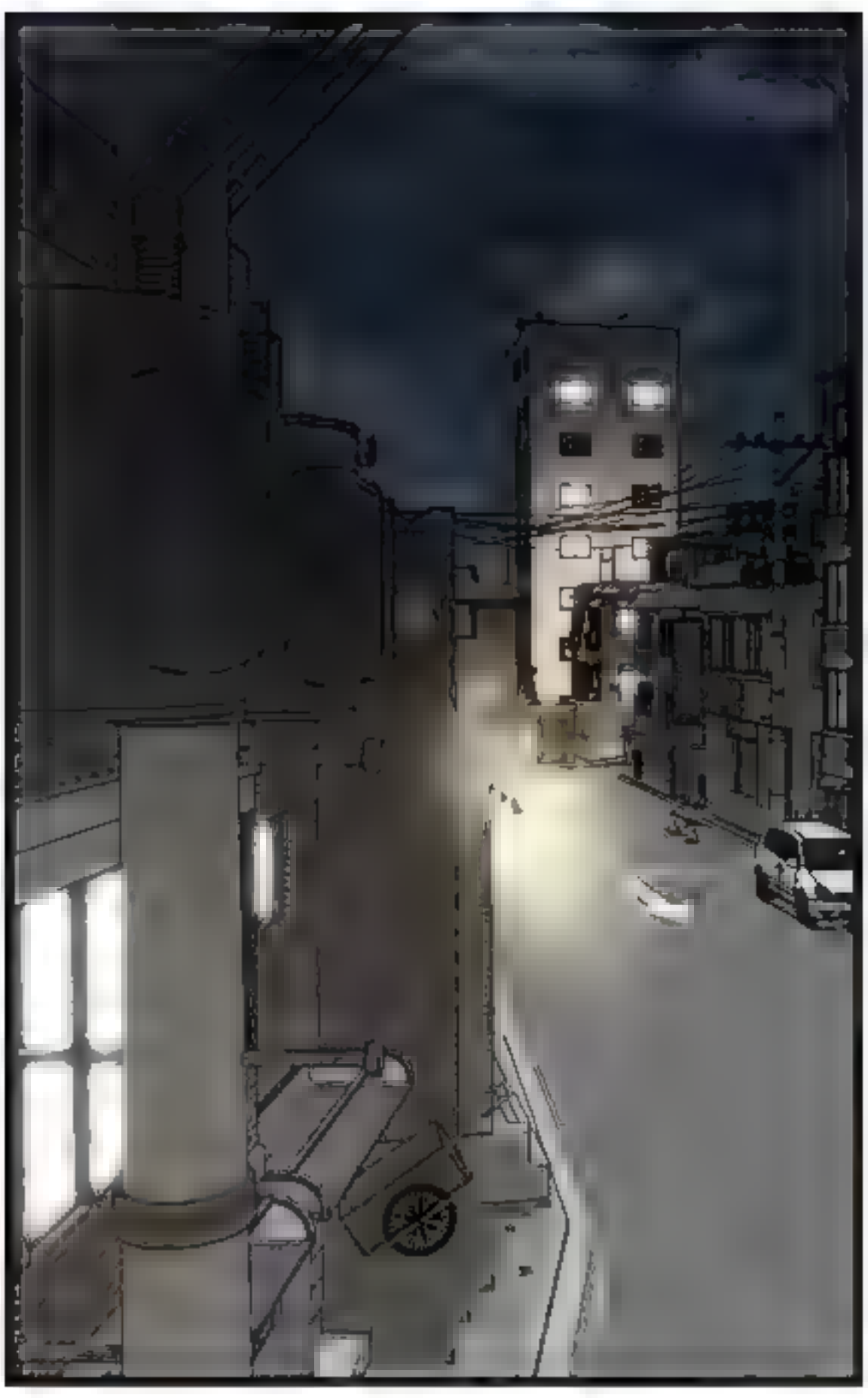
이... 이...

미친 영감탱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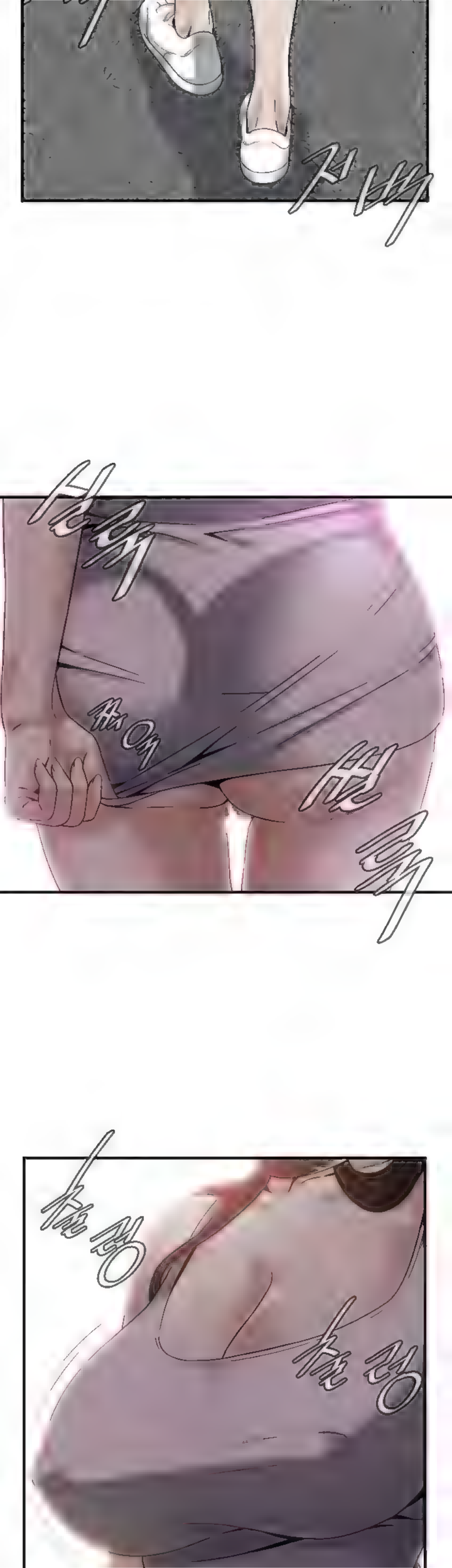
더 이상은
못 참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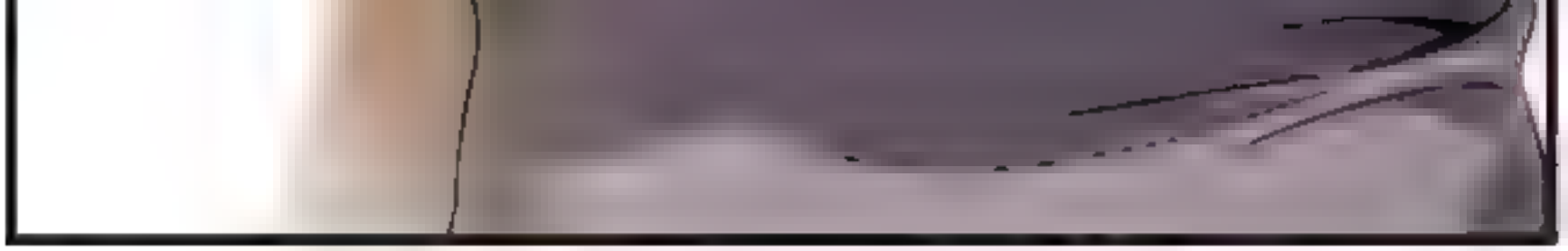

영감,
오늘이
제삿날이야!

쿵



지빵
지빵


지익
쉬이익
쉬이익
쉬이익
쉬이익
쉬이익
쉬이익



.....
하아... 아버님...
이건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 옷은
외출복이
아닌데...

이건 정말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버님...

게다가
안에 속옷도
못 입게
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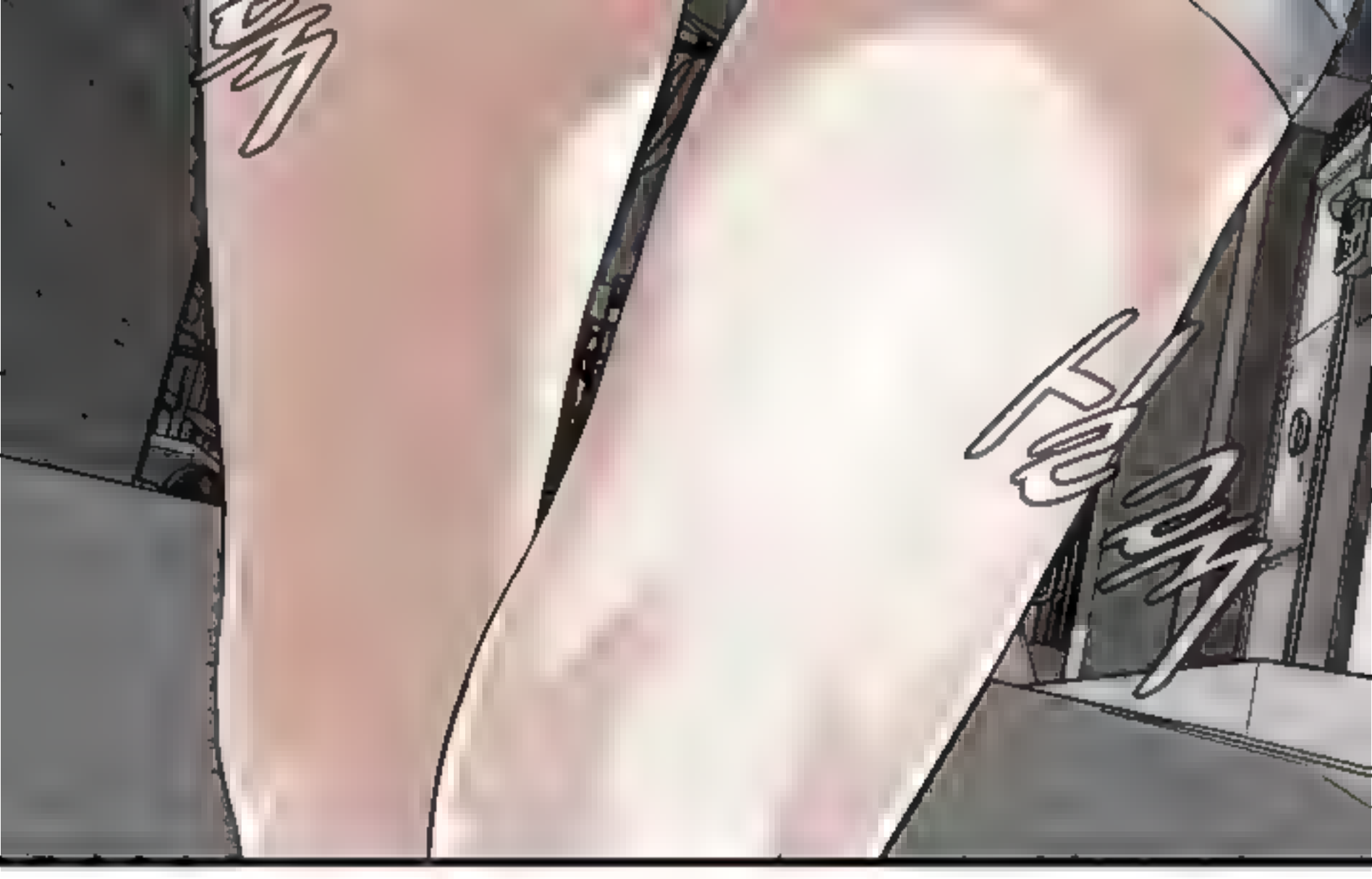
이게
뭐예요...

밤인데
누가 본다고 그러니,
신경 쓸 것 없다.

.....

보, 보잖아요
아버님...

하아...
속옷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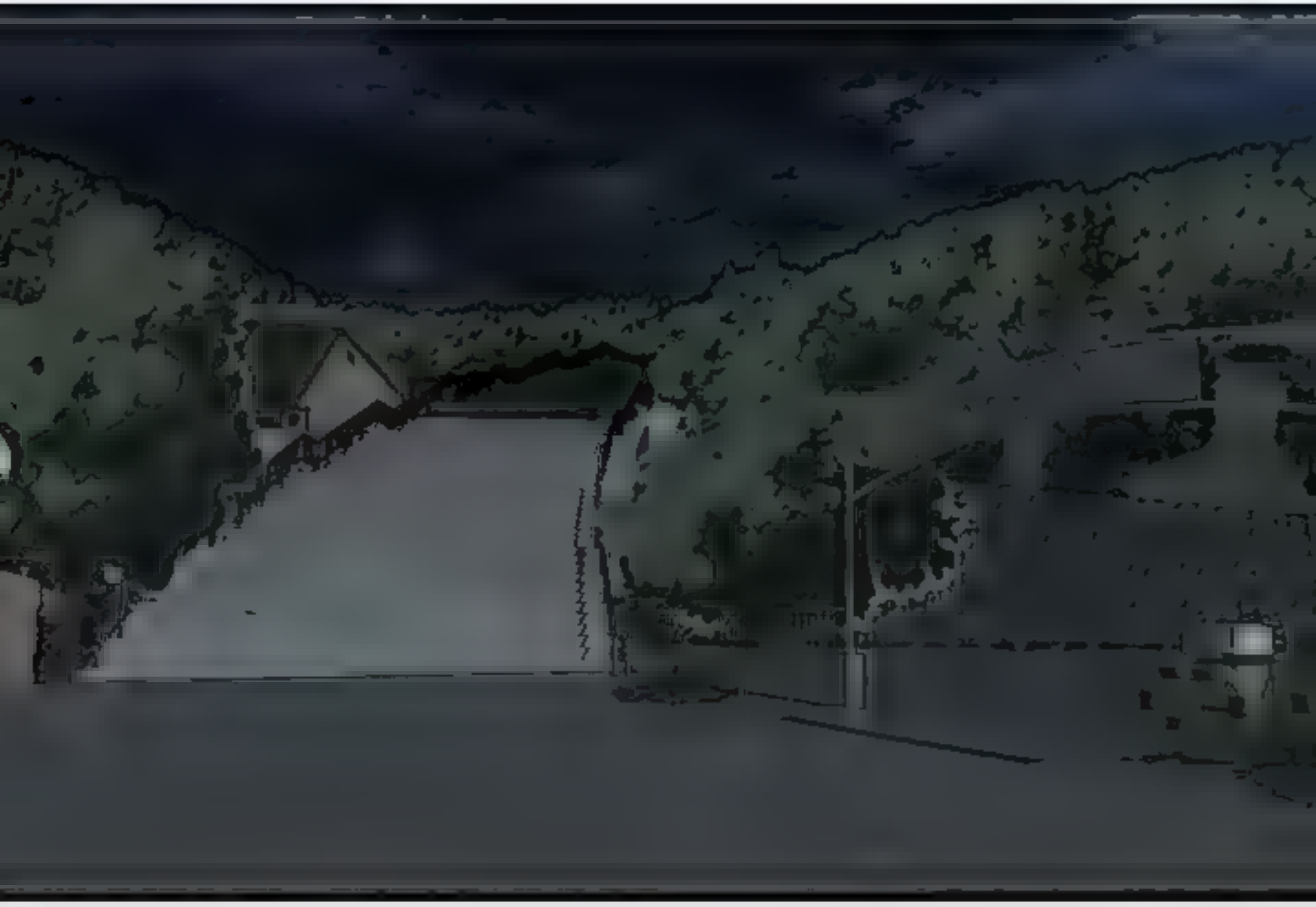


자,
어서 공원으로
가자꾸나. 조금만
참으렴.
고, 공원에 가서
또 어쩌시려구요.
어허,
자꾸
말대꾸를...

시익!!
bu
bu
bu
bu

하아...
늦었어...
이 영감탱이...
아줌마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하아...
그런 꼴을 하고
갈 만한 곳이...?
헉
헉

빌어먹을 영감탱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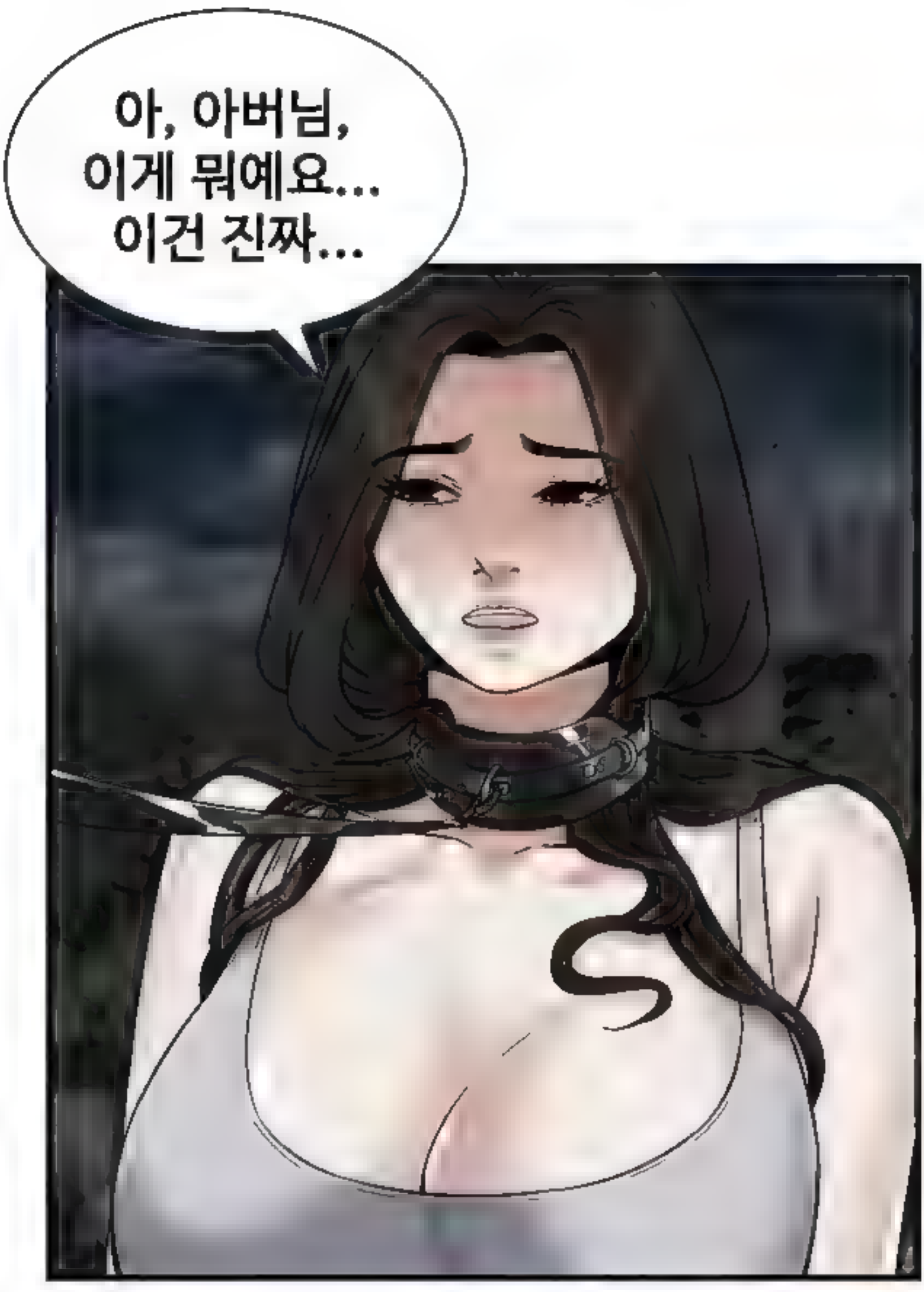


흐음...

아가,
잠깐 멈춰
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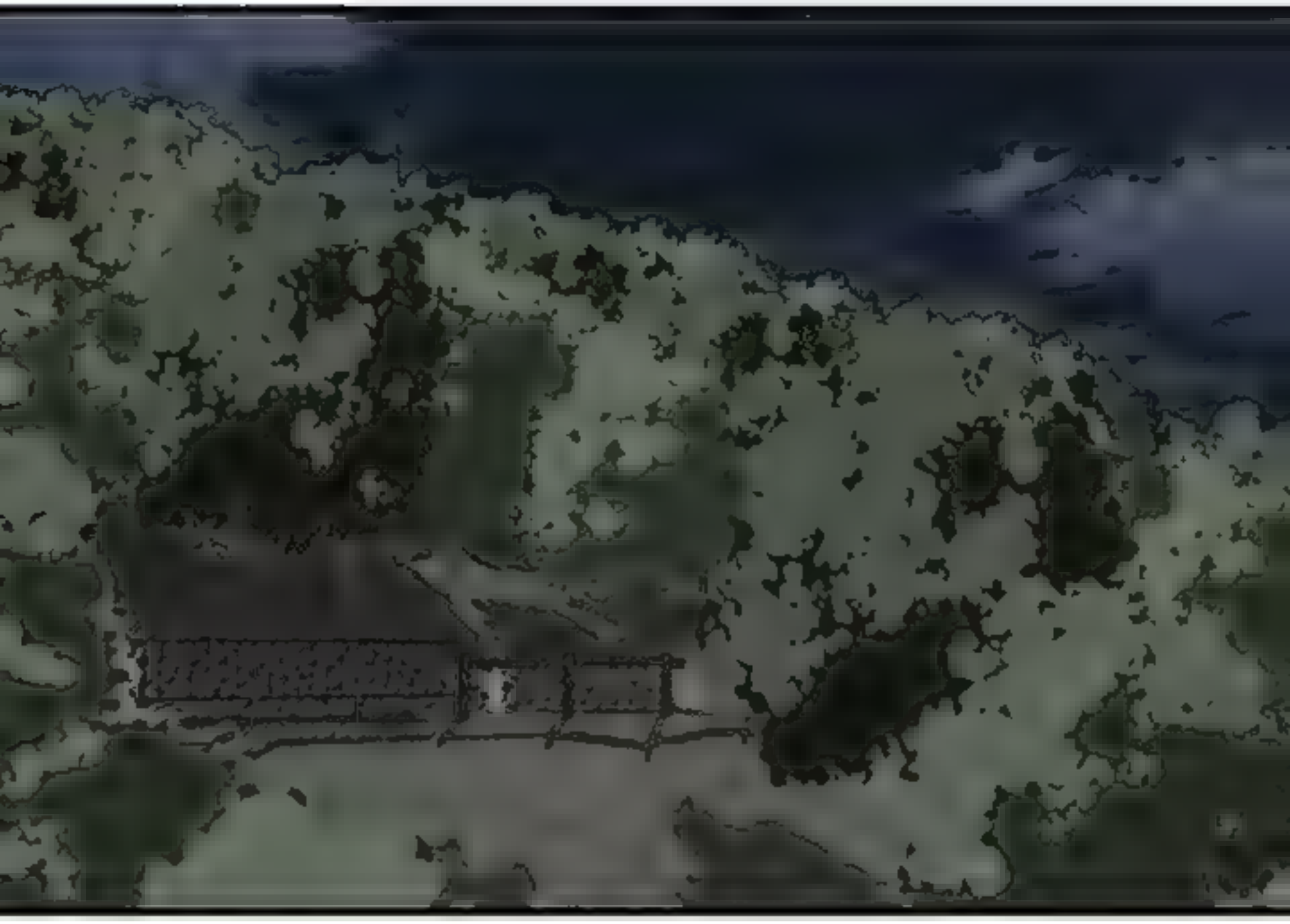
!!

자,
이제 산책이나
하자꾸나.


아,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건 진짜...

왜,
사람도 없구만...
누가 볼까
두려운 거니?

하아...
아는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럼
우리 저기
으슥한 곳으로
가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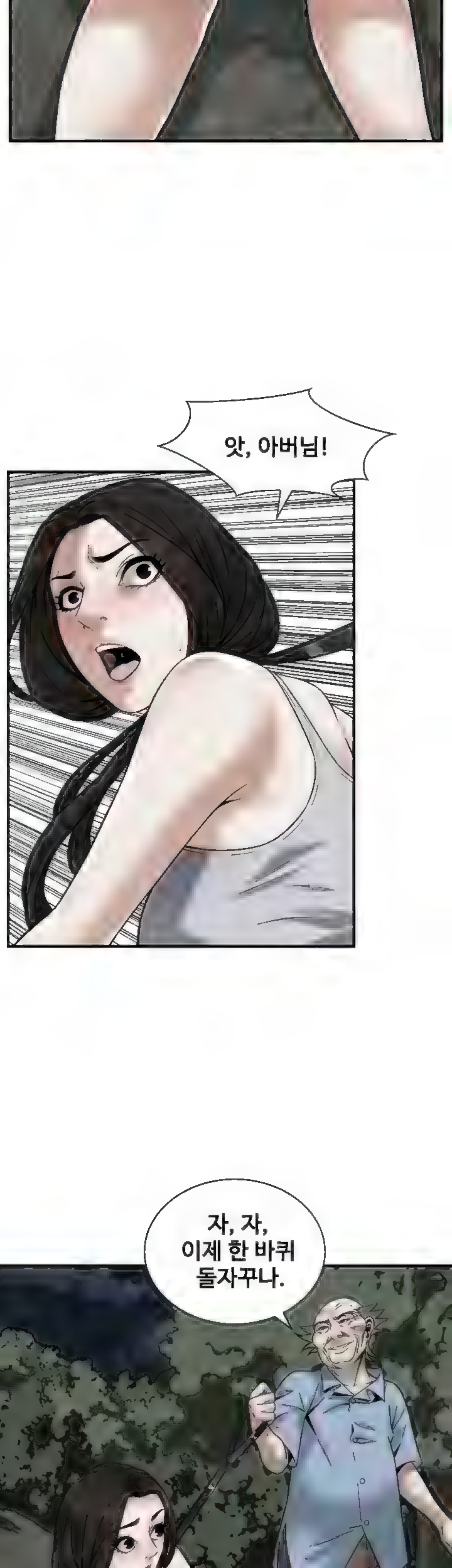
하아...

아버님...
정말 여긴 사람이
안 오는
곳인가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거라.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갈 테니까.
하아...
정말 아버님
멋대로...
어허,
이 발정 난
강아지 주제에
말이 많구나!

찰
싹
아흣!
쑥
욱


앗, 아버님!
자, 자,
이제 한 바퀴
돌자꾸나.

.....

아버님,
정말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
어서 움직이거라.

사뿍
사뿍
사뿍

흐
흐
흐

계속..